도, 국가공모사업 양적 · 질적 성장 이뤄

민선 8기 이후 국가공모사업 3년 연속 국비 1조원 이상 확보… 미래 신산업 분야 국가 공모사업 다수 선정

이차전지 · 탄소 · 모빌리티 · 스마트농업 ·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공모 다수 선정…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이후 국가공모사업 3년 연속 국비 1조원 이상을 확보하여 도정 목표에 부합하는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사업 다수 선정 등 국가 공모사업의 양적 · 질적 동반 성장을 이뤘다.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첨단산단조성 · 글로컬대학30 · 하이퍼튜브개발 등 대형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2021년 7,000억원대이던 공모사업 국비확보 규모를 2022년부터 1조원 대로 키웠다.

또한, 도정 핵심분야인 이차전지 · 탄소 · 모빌리티 등 미래신산업(25건, 1조2,090억원)과 스마트 농업 · 바이오 등 농생명분야(19건, 1,377억원) 공모사업도 다수 선정되어 관련 산업의 기술 향상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도민경제부흥, 농생명산업수도, 문화 · 체육 · 관광산업거점조성, 도민행복?희망교육 등 도정목표에 맞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가 경쟁력 있는 지자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늘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준비부터 최종 선정까지 치밀하게 대응했다.

대상 사업 발굴, 사업 필요성 검증, 응모 및 평가대응 까지 각 단계별 대응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매월 도지사 주재로 주요 사업별 진행상황 점검을 통해 부처 대응 논리를 강화하였고, 지휘부가 적기 적시에 핵심 관계자를 직접 설득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시군 및 지역 국회의원실의 공동대응 등 전방위적인 지원 또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신산업, 농생명, 문화 · 체육 · 관광, 정주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강화 지원 본격화

전북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기업당 최대 1억원 자금 지원

마을기업 홍보 · 시설구축 등 경쟁력 강화에 최대 500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사업'과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인증(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포함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이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자금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내용으로는 △단기 경영자금융자 최대 2,000만원 △장기 경영자금융자 5,000만원 △설자금 최대 1억원 △대환대출 등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7일부터 4월 4일까지로 서류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4월 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15년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지속 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홍보 · 마케팅 △ · 장비 구축 △제품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재지정(2회차) 이상 마을기업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6일까지 시 · 군 사업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미애 전북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수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제2기 전북농어업 · 농어촌위원회 출범식 개최

제2기 전북 농어업 · 농어촌위원회 7개 분과 · 127명 위촉

농민 · 전문가 · 유관기관 협력 강화… 농정 현안 해결 박차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제2기 전북농어업 · 농어촌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농정 혁신 추진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황양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 이정환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이동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송춘호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농촌진흥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위원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제1기 민간위원장을 역임한 노창득 전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과 전주대 전효진 교수는 각각 농민 공익수당 확대 및 농생명식품 분야의 정책 제안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어서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농어업 · 농어촌위원회의 운영 방향 보고, 농생명산업 수도로서의 핵심 사업 설명 등이 진행됐다.

전북농어업 · 농어촌위원회는 농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협의체로서 농민행복, 농촌활력, 농업소득, 농생명식품, 친환경축산, 수산활력, 농업기술 분야별 7개 분과와 전체위원회로 구성되어 127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제1기 위원회는 분과회의 및 세미나를 통해 총 49건의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 중 '토종농작물 보존 · 육성사업' 등 23건이 정책에 반영됐다.

또한, 필수 농자재 지원기준 마련,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방안 등 핵심 농정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2기 위원회는 현장회의를 확대하고 분과간 협업을 통한 전문가 세미나, 정책 논의 등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통합형 협치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전북농어업 · 농어촌위원회 출범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장, 황양택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참여 단체 모집

지역소멸 대응 · 청년 정착 유도… 5개 마을 선정 · 각 1억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17일부터 4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청년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생 프로그램 운영, 지역 교류 ·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5개 청년마을을 선정해 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전북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또는 기업으로, 대표자가 청년(18~39세)이며 구성원의 40% 이상이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하려면 각 단체는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사업의 실효성, 지속성, 지역자원 연계성, 지역주민과의 유대 및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5곳의 청년마을은 전문 컨설팅과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돼 현재까지 총 20개 마을을 지원했다.

특히, 2022년 선정된 익산 '사각사각'은 2023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로 선정돼 3년간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백제 공예기술을 친환경 에코기술로 재해석해 청년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전북 청년마을로 선정된 김제 '영업협동조합'은 예비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작물별 재배 기술, 가공 · 유통 운영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 농업인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청년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청년 일자리 제공 통해 지역정착 유도

51억원 투입 · 청년 600명 맞춤형 일자리 지원근속 시… 최대 1000만원 · 창업 · 고용 인센티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600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 사업에는 총 51억원이 투입되며, 직접일자리(1유형) 587명, 창업지원(2유형) 13명을 지원한다.

직접일자리(1유형)에서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월 160만원씩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3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1,000만원의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창업지원(2유형)에서는 1~2년차에 최대 3,0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급하며, 3년차에는 청년 추가 고용 시 최대 2,400만원(자부담 20% 포함)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청년들의 역량이 지역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뿌리를 내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공 고 -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총회

밀양박씨 이정공파 중증 총회를 알리고자 합니다.

#일시 :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 티하우스레몬(서울 강남터미널 2층) / 중식(시래마을)

- 안 건 -

● 결산 보고 ● 감사 보고
● 부동산매도건 ● 종중규약변경건
● 기타 안건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회장 박철진